

배포일시	2020. 7. 31.(금) 16:3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박종찬 예보관 이일용	전화번호	031-8025-5020

## 수도권 집중호우 주의 !

- 수도권 지역 매우 강하고 많은 비
  - (8월 1일 새벽~오전) 시간당 30~50mm
  - (8월 2일 새벽~오전) 시간당 50~80mm
- 8월 2일까지 총 누적강수량 250mm 이상 많은 비



[ 8월 2일 새벽 기압계 모식도 ]

## [ 강수 전망 ]

- (전망) 우리나라 남서쪽 해상으로부터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,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7월 31일(금) 밤~8월 2일(일)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
  
- (강수집중 구역과 시기)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고온의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일 새벽~오전에 돌풍과 천둥·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~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, 특히 2일 새벽~오전에는 시간당 50~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
  -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비가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.
  - 한편, 정체전선에 가까운 북한지방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어, 경기북부 인근 강 유역(한탄강, 임진강 등)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니, 저지대 및 상습 침수 구역의 거주민과 캠핑장·피서지 야영객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  - 또한,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가운데, 앞으로 내리는 비로 인해 산사태와 축대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, 매우 많은 비로 인해 농경지와 지하차도,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니,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- (강수량) 비구름대가 주로 중부지방의 북쪽으로 지나가면서 비구름대와 가까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8월 2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
-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폭이 좁은 비 구름대가 형성되고,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겠으니,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속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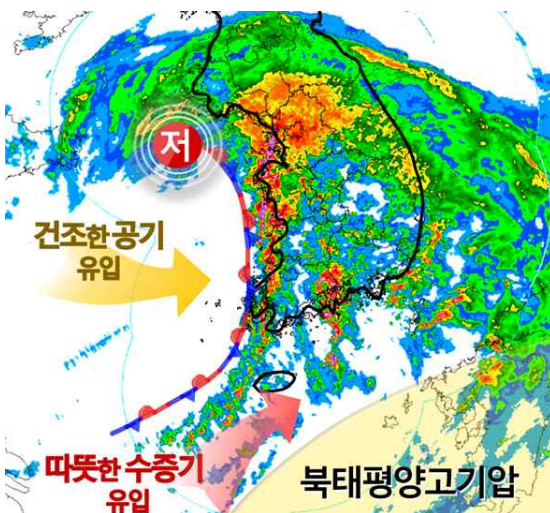
- **예상강수량(7월 31일~8월 2일)**

- 서울·인천·경기도, 서해5도: 50~150mm (많은 곳 250mm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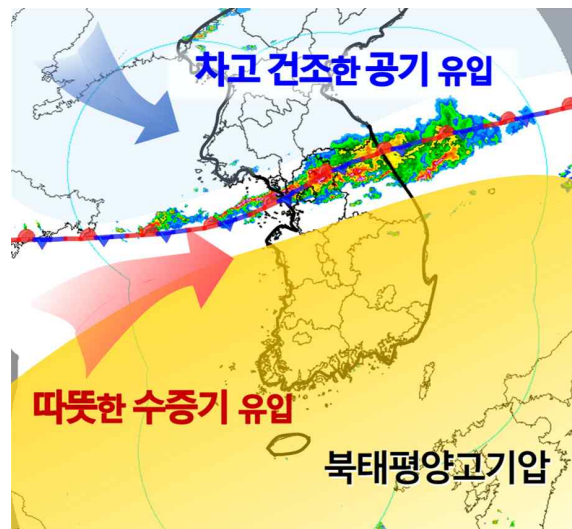
- (향후 전망) 3일(월)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당분간 중부지방과 북한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.
- 특히, 야간(밤~아침)에 비구름이 강해지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겠고, 3일은 북서쪽으로부터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가 더욱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청 홈페이지(날씨누리)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.
- (변동성) 향후 필리핀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와 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, 북태평양고기압의 미세한 진동에도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남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중기예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

## [ 최근 장마의 특징 ]

- 최근 장마기간 동안(7월) 우리나라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고,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느리게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은 제주도남쪽해상에 머물고 있었으나,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수영역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
- (6월 10일~7월 27일) 주기적으로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면서 강한 비가 지속되는 시간은 비교적 짧았지만, 강수영역이 남북으로 폭 넓게 형성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었으며,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는 시기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남쪽 먼 해상으로 남하하는 경향이 반복되었습니다.
- (7월 28일 이후) 북태평양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정체전선이 함께 우리나라로 북상하고, 고기압 가장자리로부터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강수구역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게 나타나고 있으며, 한 곳에 강한 비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후에도 이러한 특징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
[ 6월 10일~7월 27일 강수 특징 ]



[ 7월 28일 이후 강수 특징 ]